

삼성, 데스 지원·S펜 강화한 '프리미엄 태블릿' 공개



'갤럭시 탭 S4' 이달 중순 출시

태블릿 최초 '삼성 데스' 장착
데스크탑 PC 사용경험 제공

꺼진 화면 메모·번역기능 등
S펜 강화로 생활편의성 확대



갤럭시 탭 S4.

갤럭시 탭 A(2018).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4'를 2일 공개했다.

갤럭시 탭 S4는 태블릿 최초로 모바일 기기에서 데스크탑 PC의 사용경험을 제공하는 '삼성 데스'를 지원하고 정교한 필기가 가능한 'S펜'을 통해 생산성을 강화했다.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갤럭시 탭 S4의 퀵 패널에서 삼성 데스를 바로 실행하거나, 갤럭시 탭 S4를 '북 커버 키보드'에 꽂기만 하면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탭 S4를 HDMI 어댑터로 모니터나 TV로 연결하면 더 큰 화면에서 업무를 하거나 동영상,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S펜은 0.7mm 펜촉, 4096단계 필압을 인식해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며,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S펜 버튼을 누르면 ▲나만의 개성 있는 표현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라이브 메시지'가 태블릿 최초로 제공되며 ▲문장이나 단어, 환율, 단위까지 번역해주는 '번역' ▲일반 캡처뿐 아니라 동영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 GIF로 저장도 가능한 '스마트 셀렉트' 등을 지원한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바로 S펜으로 메모할 수 있는 '꺼진 화면 메모'도 지원해 메모 내용이 삼성 노트에 자동으로 저

장되며, 최대 100페이지까지 메모가 가능하다.

갤럭시 탭 S4는 10.5형 화면에 슬림한 베젤(테두리)의 16:10의 화면비,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AKG' 기술로 완성한 4개의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실감나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우선, 상하단 베젤에서 각각 브랜드 로고와 홈 버튼을 제거해 화면을 최대화했다. 또한 갤럭시 탭 S4는 4개의 모서리에 모두 전자 대비 생생한 음질의 스피커를 탑재했으며, 사용자가 태블릿을 가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세로로 사용하

고 있는지 인식해 자동으로 스피커를 전환함으로써 최적의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시간·달력·날씨 등 정보나 사진 앨범 보여주는 '데일리 보드'와 사물인터넷(IoT) 지원 기기들을 한 번에 제어 가능한 '스마트싱스'로 집안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빅스비 비전·홈·리마인더를 탑재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빅스비 보이스도 추후 지원될 예정이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자동으로 연결해 이미지나 영상, 문서 등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어느 기기에서든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삼성 플로우'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갤럭시 탭 S4는 73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16시간 연속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며, 삼성의 보안 플랫폼인 노스를 비롯해 홍채인식을 지원해 강화된 보안성을 제공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S4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탭 A(2018)'도 공개했다.

갤럭시 탭 A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길러주는 '키즈 모드'를 지원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키즈 모드'는 어린이 맞춤형 UI 디자인으로 전화·카메라·뮤직·브라우저 등 어린이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며, 태블릿 사용 시간과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부모 모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alaxy Apps for Kids Store'를 제공한다.

또한, 필리핀·도쿄·보카 등에서 제공하는 인기 어린이 애플리케이션 8종을 단독으로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일상 생활의 편의성을 확대하는데 태블릿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갤럭시 탭 S4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가 더 많은 작업을 더욱 쉽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탭 S4'는 블랙과 그레이로 2가지 색상, 갤럭시 탭 A는 블랙, 그레이, 블루 등 3가지 색상으로 8월 중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ool.co.kr

LGU+, 임직원 '창업 꿈' 돕는다

오는 10일까지 사내벤처 1기 모집

LG유플러스는 사내벤처 1기 모집을 통해 신사업 역량을 보유한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내벤처 프로그램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 로봇, 스마트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운영 기간 종료 후에는 최종 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의 기회도 주어진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사업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1년간 별도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발령한다. 이와 함께 ▲사내벤처 팀 당 최대 1억7000만원 예산 지원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별도 업무 공간 마련 ▲사내벤처 기간 동일한 급여·복지후생 및 성과급 지급 등 회사차원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사내벤처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 및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멘토링은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내벤처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IR·데모데이, 해외 진출 등 향후 창업 성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 LG유플러스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에서 운영하는 'LG Uplus 펀드 I'를 비롯해 'KIF'(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 '소프트뱅크벤처스 코리아', '심본투자파트너스' 등 출자 펀드 및 회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심본 활용해 사내벤처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후에도 필요한 투자유치 및 기술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사내벤처 1기 모집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외부와 사내 인사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최대 5개 팀을 선발하게 된다. 이 팀들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내년 8월 사내벤처 사업과 여부를 최종 평가 받는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 아시안게임 방송중계망 구축 완료

지상파 3사에 단독 제공
장애 대비 긴급복구 훈련 등
중계 차질 없도록 철저 준비

KT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중계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국제방송중계망 구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KT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실시간으로 국내에 전송하기 위한 국제방송중계망 주관 통신사로 뽑혔다. 현지 경기장에서 KT의 국제방송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방송을 해화에 위치한 KT 국제통신운용센터에서 수신해 지상파 3사에 단독 제공한다.

KT는 원활한 방송중계를 위해 자카르타 국제방송센터(IBC)와 한국 지상파 3사간 국제해저케이블 전체 구간을 주경로와 예비경로 형태로 이중화했다. KT가 홍콩에 운영하는 해외거점시설을 활용해 네트워크 장애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저케이블뿐 아니라 육로를 통한 광케이블도 활용한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대만 앞바다에서 대규모 지진 등



7월 3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국제방송센터(IBC)에서 KT 직원이 네트워크 품질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KT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KT 홍콩 해외거점 시설에서 중국을 경유하는 육로를 통한 광케이블을 활용해 즉시 대응한다.

KT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국제통신 지원준비를 위한 품질테스트 및 비상사태를 대비한 긴급복구 훈련을 마쳤다. 대회기간 성공적인 통신지원을 위해 KT는 11일부터 대회가 종료되는 9월 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개설해 비상근무 체계로 들어간다. 아시안게임 원정운영단 등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위한 국제전화 및 국제인터넷 소통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무

결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 글로벌컨설팅수행담당장 김성인 상무는 "KT는 2014 브라질 월드컵, 2016 리우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까지 주요 국제 스포츠행사의 방송중계망을 제공해왔다"며 "이는 KT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결과로 기쁘게 생각하며, 남북단일팀이 출전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국민 기업으로서 방송 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후쿠오카·오키나와 신규취항 특가 이벤트

에어서울, 8~9월 '콕콕 특가'
편도 항공운임 3만원대 판매



에어서울 항공기.

에어서울이 8월과 9월 일본 여행객을 위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인다.

에어서울은 3일 오전 10시부터 콕콕 집어 지정된 날짜에 후쿠오카와 오키나와 편도 항공권을 항공운임 1만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에 판매하는 '콕콕 특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후쿠오카와 오키나와 신규 취항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콕콕 특가'는 미리 특가 날짜를 콕콕 집어 알려주기 때문에 언제 특가 좌석이 열려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다.

후쿠오카~인천 노선은 8월 27일과 28일에, 오키나와~인천 노선은 9월 21일과

9월 23일에 각각 특가 좌석이 오픈된다.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를 모두 포함한 편도 종약은 후쿠오카~인천이 편도 기준 3만2200원부터, 오키나와~인천 노선이 편도 기준 3만3500원부터다.

'콕콕 특가' 이벤트는 8월 3일 오전 10시부터 8월 17일까지 에어서울 홈페이지 회원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KT, 대구 메리어트호텔에 AI 관리서비스

KT가 내년 문을 여는 대구 메리어트 페어필드 호텔에 인공지능(AI) 기반의 호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KT는 1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 시행사인 제이스스템스와 이런 내용을 담은 AI 호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KT 마케팅 부문장 이필재 부사장, 제이스스템트 스티븐 장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이스스템트는 내년 개관 예정인 대구

메리어트 호텔&레지던스와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부산 송도 비치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회사다. 또한 대구 메리어트 페어필드 호텔의 시행사다.

협약에 따라 KT는 자사 음성인식 인공지능인 기가지니를 활용해 객실 조명과 냉·난방 제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제이스스템트와 AI 호텔 서비스뿐 아니라 ICT를 기반으로 한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호텔 솔루션 구축을 위한



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오른쪽) 부사장, 제이스스템트 스티븐 장 대표이사(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